

2018년 10월 22일, 제주시 삼도2동 무근성노인복지회관, 이효순 조사.

송홍숙(여, 1939년생, 제주시 삼도2동)

- 결혼 후, 삼도2동에서 50년 넘게 살고 있다.

- 줄거리: 항파두리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울고 있던 업저지가 고려군에게 잡혔다. 고려군이 들어가는 방법을 말하라고 하니, 업저지는 두 이레 동안 성굽에서 풀무질을 하면 알 수 있다고 했고, 그렇게 했더니 성굽의 쇠덩이가 녹아서 성으로 쳐들어갈 수 있었다. 그래서 '애기업게 말도 들어보라.'라는 말이 전해진다.

[조사자] 처음서부터 골아봅서.

[제보자] 경허난 몽고군이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몽고군한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막연하게 참 어려웠던디 거기에 어린아이가 들어가지 못 허영.

김통정이 항파두리성을 만들어 놓으니까. 고려에서 몽고군이 쳐들어왔는데 몽고군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우꽈?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. 그것을 어린아이가. 그 집이 심부름허는 아인디. 장군네 집에서 애기업게도 허고 갖은 심부름도 다 허는 아인데 그 상황에서 가이가 이제 성문 바깥에서 애를 업엉 울고 잇엇ين디 마침

“너 무사 울없이?”

고려군이 물으니까

“나는 여기서 이렇게 일도 허고 심부름허는 사람인데 잠깐 심부름 간다 와 보니 성문이 닫혀 있어서 못 들어가서 울고 잇수다.”

고려군이 데려가가지고

“그럼 이 성문을 잘 지키고 잇다고네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.”

허영 놔 두난

“방법이 잇수다.”

“그 방법이 뭐냐?”

“두 이레만 기다리면 됩니다.”

“두 이레만 기다리고 잇이크매, 너가 그 좋은 방법을 얘기해 보라.”

“예. 그 방법이 두 이레 동안에 불미질을 그 성굽에서 계속 두 이레를 헛서.”

그렇게 허렌 허난

“이제 계믄 느 말대로 허마.”

허멍 거기서 불미질을 계속 허다 보니까 두 이레 십사일 동안 허당 보니까 셋  
덩이가 녹아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잊어가지고 성공을 했다는 어린아이 애  
기우다.

[조사자] 그게 얘기업게마씨?

[제보자] 얘기업게 말도 들었 보믄 이런 도움이 되고 이런 지혜가 나온덴 허는 말이우다.

- 핵심어: 얘기업게(업저지), 항파두리성, 김통정, 고려군, 몽고군, 성굽, 불미(풀무)